

기시와다 단지리마츠리

기시와다 단지리 마츠리는 에도시대(1603-1867) 중기 기시와다 성주가 풍작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한 축제(이나리마츠리 稲荷祭)가 기원이라고 합니다.

축제 날에는 성주가 백성들을 위해 성문(城門)을 열고, 백성들은 단지리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주 앞에서 여러 가지 예능을 선보였습니다.

시간이 지날수록 단지리 마츠리가 동네 전체의 축제가 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최대의 기쁨이 되었고 폭넓은 사람들의 인기도 얻게 되었습니다. 또 옛날에는 축제의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각 동네의 단지리가 때로는 경쟁하여 서로 부딪치고 파손될 만큼 기세가 등등한 축제였기 때문에 '기시와다 겐카마츠리(싸움 축제)'라고도 불렸습니다.

300 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기시와다 시민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단지리 마츠리는 매년 9 월 중순의 토요일과 그 다음날인 일요일에 개최됩니다. 총 34 대에 이르는 단지리가 기시와다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읍(城下町) 안을 웅장하고 호쾌하게 행진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.

또한 기시와다 단지리 마츠리는 구성원이 살고 있는 동네, 연령, 조직별로 체계적으로 통솔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 많은 일본 축제 가운데서도 유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단지리 용어

히키다시(축제 개시): 오전 6 시 기시와다 시청에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모든 단지리가 각 동네의 거리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다.웅장하고 호쾌한 축제가 시작된다.

야리마와시(질주하고 급선회): 교차로(사거리,삼거리 등)에서 단지리의 진행 방향을 직각으로 재빨리 바꾸는 것이며, 축제 가운데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손에 땀을 쥐는 장면이다.

마에테코(前提子 단지리 앞바퀴를 제동하기 위한 앞 지레)와 우시로테코(後提子 단지리를 회전시키기 위한 뒷 지레)를 조작하여 자유자재로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.

다이쿠카타(지붕 위의 퍼포먼스): 질주하는 단지리 지붕에 올라타 우치와(자루 부채)를 손에 들고 화려하게 춤을 춘다. 특히 '비행기 타기'라고 불리는 춤이 유명한데, 양팔을 벌리면서 지붕 위에서 한쪽 다리로 선다. 또 다이쿠카타는 단지리 진행 방향을 지시한다. **호리모노(단지리 조각):** 각 단지리의 측면에는 옛날 군담(軍談) 속 명장면을 정교하게 만들어진 목조(木彫)를 볼 수 있다.

미야이리(신사 참배): 축제 둘째날 아침, 34 대의 단지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신사(神社)마다 참배를 위해 끌고 간다.

제등 예행(提灯曳行): 밤이 되면 붉은 제등으로 장식된 단지리가 주요 거리를 천천히 끌고 간다.

밝게 빛나는 제등과 흥겨운 북 소리와 지화자(囃子声)는 야시장의 호객 소리나 음식의 맛있는 냄새와 조화하며 동네 전체가 훈훈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휩싸인다.

단지리 예행 스케줄

처날

- 6:00 - 7:30 히키다시
- 9:30 - 11:30 예행(曳行)
- 13:00 - 17:00 예행(曳行)
- 19:00 - 22:00 제등 예행(提灯曳行)

이틀째

- 9:00 - 12:30 미야이리 (신사 참배)
- 13:00 - 17:00 예행(曳行)
- 19:00 - 22:00 제등 예행(提灯曳行)

단지리는 총중량 4 톤, 높이 3.8 미터, 전장 4 미터, 폭 2.5 미터이며 모두 느티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. 단지리를 꺼당기는 밧줄은 100~200 미터의 길이 있고, 500~1,000 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끌고 있습니다.

매년 기시와다 단지리마츠리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.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시와다시 국체 친선협회가 기시와다 역 바로 옆에 “외국인을 위한 단지리 인포메이션 센터”를 열고 있습니다.

- ① 큰 지분 (大屋根)
- ② 작은 지분 (小屋根)
- ③ 앞 지레 (前挺子)
- ④ 뒷 지레 (後挺子)
- ⑤ 다이쿠카타 (大工方)

